

- 주요 뉴스: 미국의 관세협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 다만 이에 따른 경기불안 우려는 증폭
 - 연준 일부 인사, 고용 부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주장. 쿠글러 이사는 사임 결정
 - 중국 정부, 신흥산업에 대한 과도한 기업 진입 및 투자 등을 제한할 방침
 - OPEC+, 9월부터 일일 55만배럴 증산 합의. 유가 하방 압력 증가 예상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새로운 상호관세 발효, 7월 고용보고서 결과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7월 고용 둔화, 차익매물 출회 등으로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미국과의 무역협약의 관련 부정 평가 등으로 2.6%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예상보다 양호한 2/4분기 GDP 등으로 상승
유로화는 1.3% 하락, 엔화 가치는 0.2%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고용 부진에 따른 9월 금리인하 기대 등으로 하락
독일은 예상치 하회한 7월 소비자물가 등으로 4bp 하락

※ 원/달러 환율(주간) 1.68% 상승, 한국 CDS 상승

		8/1일	7/25일	전주말대비			8/1일	7/25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6,238.0	6,388.6	-2.36%	국채 금리 10y	미국	4.22%	4.39%	-17bp
	유럽	535.79	549.95	-2.57%		독일	2.68%	2.72%	-4bp
	중국	3,560.0	3,593.7	-0.94%		영국	4.53%	4.64%	-11bp
	일본	40,800	41,456	-1.58%	CDS 5y	한국	24bp	23bp	+1bp
	한국	3,119.4	3,196.1	-2.40%		중국	45bp	41bp	+4bp
	달러지수	99.14	97.65	+1.53%	위험 지표	EMBI+	365bp	357bp	+8bp
환율	유로화	1.1587	1.1742	-1.32%		VIX	20.38	14.93	+36.50%
	엔화	147.40	147.69	+0.20%		WTI유	67.33	65.16	+3.33%
	위안화	7.1933	7.1695	-0.33%	원자재	구리	443.6	576.4	-23.04%
	원화	1,401.4	1,377.9	-1.68%		금	3,363.5	3,337.3	+0.78%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의 관세협상, 마무리 단계에 진입. 다만 이에 따른 경기불안 우려는 증폭

-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관세전쟁은 중국을 제외할 경우 EU, 일본,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의 협상이 타결되면서 마무리 단계에 진입. 당국은 관련 노력이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실제로 최근 관세 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2/4분기 GDP도 예상치를 상회
- 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체로 이러한 모습이 일시적 착시에 가까우며, 오히려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수 있다는 불안이 확산. 먼저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연간 상승률이 2.7%로 4월(2.3%)과 5월(2.4%)에 비해 오름세가 강화되면서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제기. 가전, 가구, 의류 등 수입품 비중이 높은 부문에서의 가격상승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
- 고용부문에서도 부정적 신호들이 발신. 특히 7월 고용보고서에서 신규 취업자 수(7.3만명)가 예상치(10.6만명)를 하회했고 실업률도 상승(4.1%→4.2%). 이에 더해 5월과 6월의 신규 취업자 수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대규모 고용 축소가 이미 본격화되었다는 의견도 제기
- 이에 더해 7월 ISM 제조업 PMI가 5개월 연속 확장의 기준인 50을 하회하는 등 제조업 활성화 효과도 불분명. 특히 FactSet에 따르면, 일부 빅테크와 은행들은 양호한 2/4분기 실적을 발표했지만, 지금까지 실적을 공개한 소비재 및 소재 기업은 관세 여파로 이익이 전년동기비 0.1%와 5.0% 감소
- 트럼프 관세가 경제 성장 및 고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아직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물가상승을 동반한 저조한 고용 및 투자가 이어진다면, 경기 하강의 장기화가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요구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연준 일부 인사, 고용 부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주장. 쿠글러 이사는 사임 결정

- 그 동안 금리인하를 주장했던 보우먼 부의장과 월러 이사 등은 고용 악화를 대비하여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한편, 쿠글러 이사는 8일부터 이사직에서 물러난다고 발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 이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이에 7명의 연준 이사들 가운데 3명이 트럼프 임명 인사로 구성될 전망

■ BofA, 미국 빅테크 주가 과열 가능성 경고. Goldman Sachs는 회사채에 주의 요구

- BofA의 하트넷 스트래티지스트는 향후 경기둔화 및 이에 따른 이익 증가세 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최근 빅테크의 주가는 과도하게 높은 편이라고 주장. Goldman Sachs의 카우리 스트래티지스트는 글로벌 투자적격등급 회사채의 수익률 스프레드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데, 앞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

■ 캐나다, 미국과 무역협상 재개 예상. 고율 관세로 시민들의 反美 정서는 확산

- 對美 무역협상 대표인 도미닉 르블랑 재무장관은 자국의 카니 총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무역협상에 대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언급.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35%로 인상한 이후 미국産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는 등 시민들의 反美 정서가 확대

■ 중국 정부, 신홍산업에 대한 과도한 기업 진입 및 투자 등을 제한할 방침

- 로이터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신홍산업에 기업과 투자자들의 과도한 진입을 제한할 계획. 신홍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을 의미하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이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

■ 일본은행 보고서, 미국의 관세 부과로 자동차 등 일부 산업의 기업이익이 타격

- 경제 및 물가 전망 보고서를 통해 관세 인상으로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 또한 일부 여타의 제조업체들 역시 채산성 악화를 겪고 있다고 분석

■ OPEC+, 9월부터 일일 55만배럴 증산 합의. 유가 하방 압력 증가 예상

- OPEC+는 9월부터 일일 약 55만배럴 추가 증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발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3일(현지 시간) 열리는 회의에서 공식 승인할 예정. 이는 '23년 시행했던 일일 220만배럴 감산 조치를 완전히 되돌리는 결정.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향후 유가의 하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8/4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6월 공장수주, 유로존 8월 Sentix 투자자신뢰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경기침체 우려, 주가 변동성 확대 및 투자자 신뢰 약화 등을 초래 - 블룸버그

(‘Bad News Is Bad News’: Jobs Data Shatters Wall Street’s Calm)

- 미국의 관세정책에도 상당 기간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력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 지속. 그러나 7월 고용이 급격히 둔화되며 S&P500지수가 큰 폭 하락하는 등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이 확산. 또한 부진한 고용지표로 인한 노동통계국(BLS) 국장 해고, 對러시아 핵잠수함 배치 명령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는 위험 회피 분위기를 강화
- 이에 투자자의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은 상향 조정(40%→91%). 일각에서는 금리인하 조치가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으며, 금리인하가 시행되어도 관세정책 여파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등은 관련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고 우려. 미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 비중 축소 등 전략 마련에 고심

■ 미국 트럼프 관세, 부정적 영향이 입증된 현 상황에서 부과 지속은 위험 - 블룸버그

(Tariffs? In This Economy? Good Luck With That)

- 상반기 소비지출 감소는 팬데믹과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할 경우 18년 만에 발생한 이례적 현상. 아울러, 일자리 데이터의 현저한 둔화(지난 3개월 간 10.6만개, 1~4월 61.1만개)는 트럼프 무역정책이 기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방증
- 한편, 관세로 금년 정부 수입은 2,500~4,000억달러 증가가 예상되지만, 현재까지 부과된 관세만으로 GDP는 연간 1,150억달러(가구당 소득 2,400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Yale). 아울러, 올해 1.5%의 낮은 성장률 전망(Bloomberg)과 파생시장에서의 향후 12개월 높은 물가상승률 전망(3.3%) 등은 트럼프 관세發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

■ 미국 빅테크·대형은행 vs. 여타 기업, 트럼프 관세 등으로 이익 격차 확대 - Financial Times

(Wall St and Silicon Valley ride high as tariffs hit Main Street)

- 대부분의 빅테크 및 대형은행은 2/4분기 대규모 이익을 발표. 하지만, 그 이외의 기업은 트럼프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용 증가에 직면(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 중 52%가 2/4분기 이익 마진이 감소)하며 빅테크 및 대형은행과의 격차가 심화(Société Générale)
- 아울러, 지난 주 저조한 7월 고용 발표와 '25년 상반기 미약한 성장률(1.1%, 작년 하반기는 2.9%) 추산(FT) 등 경기 둔화 우려 속 트럼프 관세 부담은 소비재 및 소재 기업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한편, 빅테크는 AI 관련 투자 지출에 집중하면서 관세 악영향 속 미국 경제를 지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미국 빅테크의 대규모 생성형 AI 투자, 수익 기여는 아직 제한적 - Financial Times**

(Big tech's AI spend is still a shot in the dark)

- 생성형 AI 열풍을 주도하는 빅테크는 호실적과 양호한 재무상태를 유지. 하지만, 이러한 성과를 AI 효과로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 Meta는 광고 효율성 개선, MicroSoft는 클라우드 수요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으며, 생성형 AI를 통한 기여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
- 그럼에도 빅테크의 대규모 생성형 AI 투자 지속은 △AI가 곧 실질적 효용을 갖게 될 것이며 △후발주자로 뒤처질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는 신념이 작용. 그러나 생성형 AI 서비스를 어떻게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투명
- 현재 대부분의 빅테크는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만,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투자가 예고되어 있어 수익성에 상당한 부담을 줄 가능성도 존재. 앞으로 생성형 AI 투자에 대한 실질적인 수익 입증 압박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

■ **미국 인플레이션 반등, 관세 이외의 요인도 함께 작용 - Financial Times**

(Inflation is rising, and it's not just the tariffs)

■ **미국 트럼프 관세정책, 세수증가를 통한 재정문제 완화 효과로 지속될 소지 - NYT**

(Trump's Tariffs Are Making Money. That May Make Them Hard to Quit.)

■ **미국 기업의 관세 회피 시도, 한계 직면으로 무역둔화 현실화될 가능성 - The Economist**

(American businesses are running out of ways to avoid tariff pain)

■ **금융시장 투자자, 미국 주가의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 미국 예외주의를 재고 - Reuters**

(Never mind Wall Street records, investors rethink US market supremacy)

■ **EU 경제, 미국과의 굴욕적 무역협정에 따른 신뢰성 약화는 큰 타격 초래할 우려 - 블룸버그**

(Trump's EU-US Trade Deal Could Cost Europe for Years to Come)

■ **미국과 인도, 무역 분쟁과 러시아 관계 등으로 갈등 심화될 전망 - WSJ**

(Trump's Warm Embrace of India Turns Co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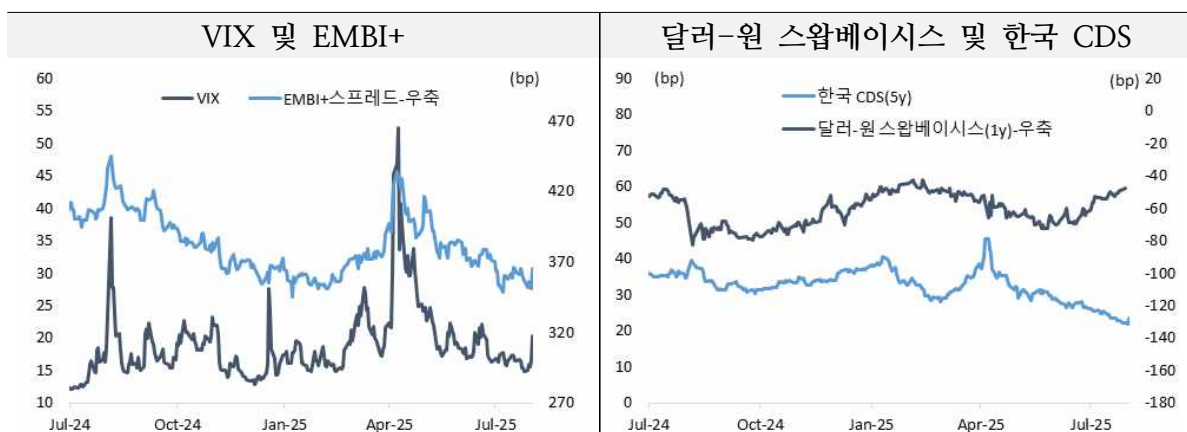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